

태안해안국립공원탐방

▶ 유태권지부장의 환영행사



국립공원 협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 태안 지부(지부장 유태권)의 초청으로 회장과 회위영 부회장 등 임원과 본부 회원등 45명과 지부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태안국립공원사랑 및 정화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임원 및 회원들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오던 지부 탐방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는데,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화 캠페인을 벌여 그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일행은 아침 7시 30분에 강남 뉴코아 앞에서 출발하여 11시 20분에 태안군 안흥항에 도착하여 마중 나와 있던 태안해안지부 회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 태안 해안 지부장이 주제로 뉴신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환영사를 들은 후 지부 회원들과 상견례를 가졌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관리 과장으로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 현황 설명을 들었다.

회원들은 지부장의 주재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부 회원들과 단합을 다졌다. 특히 곰대장 김용남씨(한국보이스타웃연맹)가 레크레이션 지도하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등 분위기를 돋구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회원들은 안홍유람선을 타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돌아보았으며 용도에 내려 주변의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등대를 방문했다. 회항 길에 월드컵 예선전에서 일본을 2대 1로 격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도 했다.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지부 회원들과 아쉬운 정을 나누며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에서는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한 회원들은 지부에서 준비한 안주와 술을 함께하며 임원 및 회원들의 단합을 더욱 결실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신지도 선장장에서 기념촬영